

윤영일 의원도 민주당 입당 타진

호남 정치권 '빅뱅' 주목

대안신당 창당 지지부진속 돌파구 찾아 각자도생
21대 총선 앞두고 정치지형도 변화에 이목 집중

창당을 준비중인 대안신당 소속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타진 중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의 민주당 입당에 이어 윤 의원은 민주당행을 적극 고려하며 21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권 지형변화가 본격화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민주당과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민주당 입당을 결심하고 당 주요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자신의 지역구인 해남·완도·진도에서 강력한 경

쟁 후보가 없는데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을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탈당 경력이 없는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입당에 크게 걸림돌이 없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윤 의원은 관계자는 "대안신당 창당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우리로서도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면서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인사들을 통해 입당 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공식으로 입당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민주당

입당 뜻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식적으로 입당원서가 제출되면 중앙당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의당으로 출마해 첫 금배지를 단 후, 분당과 정에서 민주당화당에 합류했다.
또 지난 8월 평화당의 광주전남 의원 집단탈당 때 뜻을 같이 하고, 대안정치연대에서 활동하며 오는 12월 말 창당 예정인 대안신당의 창당 발기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입당에 이어 윤 의원도 민주당행을 타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권의 빅뱅이 시작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KJ원더랜드 개관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9일 광주 동구 대인동 본점 1층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KJ원더랜드' 개관식을 가졌다.

민형배 전 비서관 광주 광산을 출마 선언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 튼튼한 광주 만들겠다"



민형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9일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민 전 비서관은 이날 광주시의 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더 당

당하고 튼튼한 광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내년 총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완성하는 것과 2022년 대

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내년 총선에서 광주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권력을 세우야 한다"며 "광주의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물려줄, 미래 광주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내년 총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비서관은 "광산구청장 8년의 경험을 쌓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두 분을 모시고 국정에 관여할 때도 제 주요 업무는 광주와 청와대를 잇는 노동들 역할이었다"고 지방과 중앙 정치의 연결을 강조했다.
그는 "광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광주에 꼭 필요한 것을 행하는 가치와 실질추구의 정치", 지역 현안에 대해 소신있게 발언하고 통근 결단을 이끌어내는 '조정과 협력의 정치', 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항상 듣고 국회 활동에 투입하는 '경청과 반응의 정치'를 하겠다"며 "선언의 내용 한 회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꼭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형택 기자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 내부갈등 끝에 공식 해산

재단 정기이사회서 결정...3년간 재설립 불허

노무현재단 전남지역위원회가 내부 갈등 끝에 '해산'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이사회는 지난달 26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전남지역위원회의 공식 해산을 의결하고 같은 날 회원들에게 해산 사실을 알렸다.
재단이사회는 정기이사회 후 '노무현재단 전남 후원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운영 폐지 결정 사유도 알렸다.
재단이사회는 "전남위원회 임원진 간의 분쟁이 지속·격화돼 왔고 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비상한 상황에서도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분쟁은 이후 지역위원회 운영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지역위원회를 폐지

하고 분쟁의 확대를 중단시키는 것이 다수의 전남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었다"며 "전남지역위원회는 2019년 11월26일부로 운영 폐지되고, 이후부터 노무현 재단 전남지역위원회 명의의 어떠한 활동도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율러 "3년 후인 2022년 10월까지는 전남지역위원회 재설립이 불가하다"며 "3년 유예 기간 이후 재설립 여부는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후 노 전 대통령의 뜻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창립됐다.
전남위원회도 지난 2011년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기리고 업적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전남위원회는 해산 전까지



2000여명(순천지역 회원 600명)의 회원이 활동했으나 갑작스런 '해산' 소식에 많은 일반회원들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한 회원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해산까지는 예상치 못했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지역 내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한 계파 간 헤게모니 싸움이 결국 노무현 정신을 훼손하고 지역위원회의 파멸까지 불러온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반발심리도 바탕에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제17회 보성차밭빛축제

2019. 11. 29.(금)~2020. 1. 5.(일)
한국차문화공원일원

2020 보성울포해변불꽃축제

2019. 12. 31.~ 2020. 1. 1.